

스마트기술 통한 건설현장 안전 실현

5~7일 ‘스마트건설·안전·AI 엑스포’… 김윤덕 국토부장관 “건설산업이 나아갈 새 패러다임 전환 모색 계기”

전북 출신인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은 5일부터 7일까지 경기도 고양 킨텍스 제7, 8전시장에서 ‘스마트건설·안전·AI EXPO’(엑스포)를 연다고 4일 밝혔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스마트건설·안전·AI 엑스포는 그동안 스마트건설 활성화와 산업생태계 소통의 장 역할을 해왔으며 주제는 ‘AI와 함께하는 스마트건설, 더 안전한 미래로’다.

4일 김윤덕 장관 및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국토부가 주최하며, 국가철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안전관리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공항공사가 주관한다는 것이다.

개막 행사로는 스마트건설 헬린지 시상식,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시상과 함께 스마트건설 안전선포식,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총회가 열린다.

우선 스마트건설 헬린지는 안전관리, 단지·주택, 도로, 철도, 건설정보모델



링(BIM) 등 5개 주요기술 분야에 대해 경연을 하는 행사로 올해는 총 97팀이 참여해 최우수상(장관상) 5팀이 선정됐다.

스마트건설 안전 선포식은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행사다. 건설현장의 노동자와, 건설사, 정부가 함께 AI 모델링 등 첨단장비로 건설 현장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감지하고 예측해 안전사고 제로를 완수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시간이다.

선포식에서는 남녀 현장 근로자, 외국인 노동자, 학생이 센서 등 스마트 안전장비가 부착된 작업복을 입고 건설 생태계 전 구성원의 참여를 통해 안전 다짐식 및 실천 의지를 표명하는 세레머니가 진행된다.

대·중소·벤처기업이 운영을 주도하고, 학계·연구원 및 공공 등이 지

원하는 협의체인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총회에서는 성과공유회와 함께 스마트건설 선도 프로젝트에 대한 장관상 시상과 얼라이언스 기술 실증 우수 사례와 올해 성과 및 내년도 계획안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다.

이와 함께 설정정보모델링(BIM), 탈원장건설(OSC), 건설자동화, 스마트안전, 디지털센싱, 빅데이터&플랫폼 등 11개 분야 핵심 기술을 279개 기업이 참여한 800여개 부스를 통해 소개하는 기술 전시도 진행된다.

전시장에 마련된 포럼장에서는 스마트 지하안전, 스마트 건설과 AI, 로봇 기술로 열아가는 스마트건설의 미래, 건설산업의 AI를 이용한 디지털 전환을 주제로 4개의 전문 포럼이 개최된다.

또한 ‘AI, 청년, 안전’을 주제로 ‘지금의 건설의 시대 특별 토크쇼’도 진행된다. 예비 건설기술인, 대학생 업계 관계자가 질문하면 정부와 국회, 기술 인형화가 즉석에서 답변하는 취지다.

토코쇼에는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 박철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장, 박종면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밖에 엑스포에 참여한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터널 TBM 현장, GTX-A 건설현장 등에서 현장 캠퍼, 청소년 취업지원 캠프도 열린다.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스마트건설 기술교육 시간이 인정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엑스포는 스마트 기술을 통한 건설현장의 안전을 실현하는 출발점이고, AI 시대를 맞아 우리 건설산업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설분야 여러 전문가 및 기업들과 함께 모여 건설산업의 미래 비전을 논의하고 건설산업이 유능한 젊은 인재들이 모여드는 매력적인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희성 기자



김관영 도지사는 4일 전북특별자치도청 회의실에서 아프리카 짐바브웨 에밀리 제사아 국회의원 겸 스포츠·문화부 차관과 이집트 아흐메드 아즈미 사이드 청소년·스포츠부 차관에게 전북사랑 도민증을 수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프리카 스포츠 관료들 전북 글로벌 홍보대사로

짐바브웨 에밀리 제사아 스포츠·문화부 차관

이집트 아흐메드 스포츠부 차관에 도민증 수여

전북특별자치도가 아프리카 스포츠부처 고위 관료들에게 도민증을 수여하며, 국제 스포츠 도시로서의 위상강화에 나섰다.

김관영 도지사는 4일 도청 회의실에서 아프리카 짐바브웨 에밀리 제사아 국회의원 겸 스포츠·문화부 차관과 이집트 아흐메드 아즈미 사이드 청소년·스포츠부 차관에게 전북사랑 도민증을 수여했다.

이번 수여는 재외동포를 제외한 순수 외국인 대상으로는 첫 사례다. 두 차관은 앞으로 아프리카를 포함한 전 세계에 전북을 홍보하고 국제 스포츠 개최 최적지임을 알리는 글로벌 외교 동반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도는 지난 9월 국제외교 협력 강화를 위해 아프리카 나미비아와 짐바브웨를 방문했다. 당시 주짐바브웨대한국대사관과 공동 개최한 ‘공공외교 한마당 K-페스티벌’에서 짐바브웨의 축감받는 여성 지도자인 에밀리 제사아 차관을 만나 이날 4일부터 9일까지 원광대학교에서 열리는 ‘2025 익산 빅터 코리아마스터즈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방향을 제안했다.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이집트는 FIFA 산하 아프리카 축구연맹 본부가 소재

하는 등 아프리카 스포츠 행정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번 방문은 향후 전북특별자치도의 스포츠 외교력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됐다.

에밀리 제사아 차관과 아흐메드 아즈미 사이드 차관은 방문단을 대표해 “스포츠 세계대회 참여 기회를 제공한 전북특별자치도에 감사드린다”라며 “전북사랑도민으로서 자국은 물론 아프리카 전역에 스포츠 도시이자 K-컬처 중심 도시로 전북특별자치도를 널리 알리겠다”고 화답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은 K-컬처의 본고장으로 세계적인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1997 무주·전주동계유니버시아드, 2017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등 국제스포츠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자랑스런 도시”라며 “앞으로 스포츠 교류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짐바브웨·이집트 방문단은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참가와 함께 전주 월드컵경기장과 무주 태권도원 등 도내 주요 체육시설을 둘러보고, K-리그 전북 현대 경기 관람과 전북체육중·고등학교를 찾아 학생들과 교류하는 등의 스포츠 프로그램을 경험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민주 박희승 의원, ‘인격권

인격표지영리권 보장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4일, 인격권을 명문화하고,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을 보장하기 위한 ‘인격권 및 인격표지영리권 보장법’ ‘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민법 총칙에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 자유, 성명, 초상 등과 같은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인 인격권을 명문화하고, 인격권과 결합된 재산권의 일종으로서 자신을 특징짓는 요소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인 인격표지영리권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침해 행위에 대한 중지 및 침해된 인격적 이익의 회복을 위한 금지청구권을 명시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격권을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겠다는 취지이다.

현행 헌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제10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제17조)를 명문화하여 인격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사법의 영역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제한적이다. 이로 인해, 사회생활의 기본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에 인격권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또한, 판례는 1990년대부터 사람의 초상초상·성명·음성 등 자신을 특징짓는 요소(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인격표지영리권)를 침해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해 왔으나, 명시적인 법 규정이 없어 하급심 판례가 엇갈리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만호 기자



최형열 도의회 기획행정위장

삼천3동 주민 생활환경 점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전주5,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전주시 삼천3동 주민센터 앞 인도 구간을 방문해 파손이 심한 인도와 노후된 가드레일 등 정비가 필요한 시설을 점검하고, 도와 전주시에 신속한 보수를 요청했다.

이날 현장에는 전북도청과 전주시 관계자들도 함께 참여해 인도 정비의 필요성과 향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점검 대상 구간은 명재어린이집이 인접해 주민과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생활도로로 바다 일부가 파손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노후된 가드레일 역시 안전 기능이 저하된 상태다.

/이만호 기자



4일 국회 소통관에서 ‘인공태양’으로 불리는 핵융합 연구시설의 전북 새만금 유치 촉구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김관영 도지사, 전북 국회의원들이 새만금 유치를 촉구하고 있다.

‘인공태양’ 핵융합 연구시설 새만금 유치 총력

전북자치도·군산시·전북 국회의원들, “최적 입지는 새만금… 정부, 최종 입지로 선정하라”

김관영 지사·김의겸 새만금청장 등 공동위원장으로 유치위원회 발족… 본격 활동 나서기로

전북특별자치도가 4일 군산시,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공태양’으로 불리는 핵융합 연구시설의 전북 새만금 유치를 촉구했다.

이날 이 자리에는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전북 국회의원, 전북도의회 의장, 공동유치위원장인 유희열 전 과학기술부 차관, 새만금개발청, 군산시, 전북대학교와 군산대학교 관계자 등 16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새만금을 미래 에너지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핵융합 연구시설의 최적 입지가 전북 새만금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이 새만금을 최종 입지로 선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도와 군산시는 2009년부터 한국핵융

합에너지연구원의 전신인 국가핵융합연구소와 협약을 체결했다. 2012년에는 플라즈마기술연구소를 개소하며 핵융합 연구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후에도 연구시설 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입지 여건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새만금은 도로, 철도, 항만, 공항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국가 교통 허브이자, RE100 기반의 청정에너지 인프라를 갖춘 국내 유일의 과학기술 실증형 복합산업단지다.

이같은 특성은 인공태양(핵융합) 연구시설이 들어서기에 최적의 환경임을 보여준다. 이차전지, 탄소소재, 에너지 산업 등 연계 산업 기반도 구축돼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새만금을 첨단산업 테스트베드로 조성하

겠다’고 밝힌 만큼, 새만금이 핵융합 연구시설의 현실적이며 필연적인 선택지라는 주장이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그동안의 핵융합 연구 협력 경험과 새만금의 인프라를 토대로 대한민국 미래 에너지의 중심지로 도약하겠다”며 “전북 정치권이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은 만큼, 반드시 핵융합 연구시설을 유치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김관영 지사,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강임준 군산시장, 유희열 전 과기부 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핵융합 연구시설 유치위원회 100인’을 발족하고, 상임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유치 활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만호 기자

“전북정치의 선의의 경쟁 통해 도민의 삶 혁신하자”

혁신당 도당, 윤준병 민주 도당위원장 선출에 축하논평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정도상)은 4일 오전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된 윤준병 국회의원에게 축하의 뜻을 전하며, “전북 정치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 도민의 삶의 혁신으로 이어지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대변인단 명의의 논평에서 “11월 2일 임시당원대회를 통해 윤준병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신임 위원장으로

로 선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다”며 “윤 위원장이 밝힌 ‘국민·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해결의 정치’, ‘통합·혁신·현장 중심’ 기조, ‘공정하고 투명한 경선’과 ‘당원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되는 열린 도당’이라는 방향은 지역 정치를 건강하게 바꾸는 데 의미 있는 약속”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도민 우선·당원 중심’, ‘당원 주권 도당’ 운영 원칙과 ‘전북특별자치도다운 실질 변화’ 약속

또한 주목한다”며 “전북 정치의 혁신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과 선의의, 건강하고 건전한 경쟁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북의 구조적 과제에 대한 실시구시형 해법 경쟁을 제안하며, 도민과 함께하는 정책 경쟁, 현장과 과학적 데이터에 기초한 해법 경쟁을 통해 전북의 도약을 앞당기겠다”며 “전북 발전을 위한 선의의 경쟁, 건전하고 건강한 경쟁으로 전북 정치를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제에 대한 품질관리 기준을 수립한다. 상용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신약 개발을 위한 효능·안전성 데이터 기반 평가 가이드라인 실증’이 추진된다.

현재 3개로 한정된 국내 자가백신 대상을 확대하는 ‘자가백신 대상 전품목 확대 실증’도 진행된다. 수의사 처방에 따라 농장별 유행주 검사 결과를 반영한 맞춤형 백신을 제조·사용하는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다.

‘고양이의 우선 사용 대상 실험동물 지정 필요성 실증’을 통해서도 고양이를 실험동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관리기준을 마련한다. 실험용 고양이 품질검증·수입 및 공급 표준 시스템을 구축해 반려묘 신약 후보물질에 대한 비임상·임상시험을 수행한다.

/이만호 기자